

야마가타의 유산

山形の遺産

야마가타의 수많은 전설과 함께 영지로서 전승되어 온 산들과 그 속에 장엄하게 들어선 신전. 그리고 흥화교역을 통해 전해진 교토의 문화.

귀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야마가타에 일본문화의 원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인들의 생활양식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야마가타를 여행하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幾多の伝説とともに霊場として語り継がれる山々と、そこにそびえる荘厳な社殿。

紅花交易が伝えた雅な京文化。

貴重な文化遺産が点在する山形に、

日本文化の原点を求めて訪れる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

いにしえの人々の生活や思想に思いをはせるロマンは、山形を旅する魅力のひとつです。

데와삼산 · 하구로산의 오층탑 (쓰루오카시)

동북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탑인 하구로산의 오층탑(높이 29.2m)은, 다이랴 마사카도가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出羽三山・羽黒山五重の塔(鶴岡市)

平糶門が建立したと伝わる高さ29.2mの東北最古の塔。国宝指定の貴重な文化財である。



분쇼칸(야마가타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구 현청건물.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복원되었습니다.

文翔館(山形市)

旧県庁舎でルネッサンス風の建物。国の重要文化財の指定を受け復元された。



야마데라(야마가타시)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 시인 '마쓰오 바쇼'와 깊은 인연을 가진 곳. 가을 단풍이 특히 유명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옵니다.

山寺(山形市)

俳聖芭蕉の、奥の細道ゆかりの地。秋は見事な紅葉を見に多くの人が訪れる。



구로카와 노(쓰루오카시)

5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구로카와 노'는 일본의 중요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로카와 노의 독특한 춤사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고 오묘한 노의 매력에 빠져들게 합니다.

黒川能(鶴岡市)

500有余年の伝統を誇る、国の重要無形民俗文化財。その舞姿は観客を幽玄の世界へと誘う。



다이니치보(쓰루오카시)

엄격한 수행을 마친 후 즉신불이 된 고승을 모시고 있는 절입니다. 이 외에도 야마가타에는 즉신불을 모시고 있는 사원이 다수 존재합니다.

大日坊(鶴岡市)

厳しい修行の後、即身仏となった高僧が祀られている。このほかにも即身仏を祀った寺院が多数存在する。



산료창고(사카타시)

1893년에 사카타 미곡거래소의 부속창고로 세워진 이후, 현재까지도 창고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山居倉庫(酒田市)

明治26年、酒田米穀取引所の附属倉庫として建造され、今も倉庫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



긴잔온천(오바나자와시)

다이쇼 시대(1912년~1926년)부터 쇼와시대(1926년~1989년)에 걸쳐 세워진 목조식 여관들로 유명한 긴잔온천은, 고전적인 일본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NHK의 인기드라마 '오성'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銀山温泉(尾花沢市)

大正から昭和にかけて建てられた木造旅館が立ちならぶ、趣深い古き良き湯の街。人気のテレビドラマ「おしん」のロケ地として知られる。